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원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여주시, 찾아가는 관광 친절마인드 교육 진행

전문 강사 친절 교육·여수시민되기 운동 진행



여수시와 (사)여수관광협의회가 27일 여수베네치아호텔에서 박람회장 권역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광 친절마인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베네치아호텔, 아

쿠아플라넷,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김학섭 관광과정은 인사말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결한 시설과 환경, 따뜻한 손님맞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관광업체와 직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선 사립숲 컨설팅 양지 대표는 “관계의 99%는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친절교육을 진행했다. 양 강사는 “고객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궁정에서 시작한다”며 “친절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와 관광업종사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여수시민되기 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관광업체에 근무하는 미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전입세대 인센티브 입신·출산·보육 지원, 교육 지원 등 ‘여수시민’이 되면 받는 특별한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전입신고 접수창구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3월부터 매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 신청 업체는 우선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강진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완료

강진군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초 사회복지시설인 마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이 이용하는 관내 33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

시하여 규모에 따라 1~3대씩 총 406대가 보급됐다.

올해 보급된 공기청정기는 군이 최고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2단계의 엄격한 입찰심사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제품은 대용량 필터 사용으로 정화면적이 넓고, 습기에 강한 나

노필터를 장착하여 초미세먼지는 물론 냄새제거에도 탁월하다. 리본 저감 활성탄을 사용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인 리본 저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효율등급도 1등급으로 전기료에 큰 부담이 없으며, 외관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강철을 사용하여 파손 및 생활안전에 뛰어나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진행



장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동희, 김규탁)는 지난 29일 장흥문화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청소년, 아동, 어린이집 등 종사자 3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의무교육을 받으려면 목포나 순천, 광주 등 타지역을 방문해야 했는데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을 크게 덜었다는 반응이다.

교육은 YMCA 평생교육원 전문강사를 초청해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의무교육은 4대폭력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식 개선교

육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장흥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먼 곳으로 다녀오는 번거로움을 개선해 나가고자 매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며, 더불어 복지사각지대발굴과 민간지원연계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담양군, 벼 신품종 개발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총력’



담양군이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야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 쌀’의 품격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딸기 신품종을 자체개발해 담양 딸기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으며 벼, 블루베리, 멜론 등의 품종개발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담양의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3

년간 진행한 실증시험 결과 선발된 우량계통 중 수량, 미질, 밥맛을 평가해 그 중 가장 우수한 1계통(담양 1호)를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담양 1호는 29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손모내기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 4개 지역(담양, 나주, 전주, 익산)에서 3년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2021년 국립종자원에 품종을 출원할 계획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고온기 시설원예 온도저감시설 설치

영암군은 올해 빠른 고온현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군은 27일 시종면 오용진 농가포장에서 ‘이상기온 대응 시설원예 온도저감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시설원예작물은 고온이 지속되면 생육이 더디고 기형과 발생해 농기에 피해를 준다. 특히, 영암군 시설원예는 수박, 멜론, 풋고추, 토

마토 등 고온기를 경과하는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온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기상분석 결과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전년(2018년) 7~8월의 30°C 이상 일수가 48일로

서 평년 40여일 대비 8일 정도 더 많았으며 올해도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하우스에 시범적

으로 포그시스템, 쿨네트, 유동팬 등을 설치하여 10°C 이상의 온도 저감효과를 가져와 원예작물 생육상태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진동평 군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에 대비하여 온도 저감시설의 효과분석과 아열대작물 도입 등 작물 변경도 시험재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농가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배출사업장 집중 점검

완도군에서는 관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6월 1일부터 2주간 실시되며 관내 대기, 폐수, 비산먼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신고 여부를 비롯해 불법 무단 배출 시설물 방지 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미세먼지 억제 시설 설치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조치하고, 경미한 시장은 현장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가 해양지 유산업 원년의 해인만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 조성을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화순군, 보호수 보호 관리사업 추진

화순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보존 가치가 있는 보호수 보호 관리를 위해 생육 환경을 살피는 등 보호수 보호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생육 불량목, 고사 우려목 등에 외과 수술, 수관 정비, 콘크리트와 뿌리 부분 장애물 제거, 휴식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호수를 관리한다.

군은 매년 보호수의 생육 기능을 증진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보호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3자례로 나눠 진행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5월에는 11본의 보호수 보호 관리 사업을 미루지 않았다. 6월에는 27본의 보호수 생육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보호수와 노거수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곡면 천암리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마을 숲 보호 관리사업도 추진한다.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다.

현재 군이 지정·관리하는 보호수는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팽나무 등 308개소에 85본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